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100 FAX: 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사랑의 헌혈 14일 실시

본 교회당 앞에서 전 교인 대상 예수님의 사랑 실천 몸소 행하자

당회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산하 사랑의 실천 운동 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오는 주일(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당 앞 뜰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교회 전 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헌혈 운동은 대한적십자 남부 혈액원에서 협조한다.

지금 우리 나라 개신교단에 속한 신자 중 헌혈이 가능한 교인은 약 5백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헌혈에 참여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혈

액량(연간 소비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고, 혈액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인 만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오늘은 성령강림주일

오늘은 전국 교회적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오순절)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축일이다.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더욱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92년도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자.

신성종 목사 미주기독교방송 설교 안내

- 수요일 오전 9시~10시
- 목요일 오후 6시 10분~7시

제2차 태신자 카드 작성 6월 28일과 7월 5일에

교회는 베가운동의 풍성한 결실을 위하여 오는 6월 28일과 7월 5일 제2차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일반 성도들은 구역 모임 혹은 협력 구역 모임이나 교구 모임시 작성하며, 교회학교는 각 부서별로 작성하고, 그밖에도 예배 시간이나 집에서 작성하여 예배 시간 전후에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당일에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여 교회

가 개인 전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충현동산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현재의 충현동산 맞은 편에 위치한 동산 조성을 위하여 5월 당회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위원장에 동산관리부장을, 위원에 당회서기, 기획위원장, 재정위원장(이상 당연직), 오진국 장로, 노광현 장로, 오정현 장로를 각각 임명하였다.

카메라 초점



▲“베가운동은 충현인 모두의 사랑!”
(교회학교에서도 부서별로 베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중등 2부는 지난 5월 29일 짝초청 전도 잔치를 개최하였다.)

전 교인 베가운동

1. 6월 28일은 제2차 태신자 카드 작성의 날입니다.
2.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3. 꼭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북한선교세미나 개최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 지도 김창수 목사)는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북방 선교 세미나를 개최한다.

북한 선교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정보 및 자료 교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세미나는 이원설 박사(전 한남대 총장), 최문현 원장(통일연수원 원장), 이삭 목사(모퉁이돌선교회 대표) 등이 강사로 초빙되어 “북한 선교의 통일 전망과 향후 과제”, “남북 대화와 북한 선교”, “한국 교회의 북한 선교 정책” 등의 주제로 세 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담당 목사”를 “협동 목사”로

현재 “교육 담당 목사”로 지칭되는 교역자들을 “협동 목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르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는 윤영탁 목사, 정규남 목사, 손영준 목사, 김정우 목사, 노봉린 목사 등 모두 다섯 명이다.

교사 강습회 개최

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는 여름성경학교와 수양회를 위한 교사 강습회를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개최한다.

새가족 환영회 교구 차원에서 실시키로

새가족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여 오던 새가족환영회를 교구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 지도 최인근 목사)가 주관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도 변경하여 격월 둘째 주일 4부 예배가 끝난 다음 본당에서 연합 교구 모임 후에 환영회를 갖는다.

제직회 회집 시간 변경

이제까지 매월 첫째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소집되던 제직회의 회집 시간이 7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일 4부 예배 후로 변경된다. 아울러 제직회가 있는 주일의 교구 모임은 제직회 후로 순연된다.

수도노회 장로회 부회장에 최대원 장로 피선



교회학교 청년3부 부장인 최대원 장로가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 대성교회당에서 개최된 수도노회 장로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충현프리즘

①...지난 5월 8일부터 실시된 ‘충현 금요찬양’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되는 찬양의 시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려는 일천여명의 충현의 새구들과, 이웃의 타교회 교인들도 함께 참석하여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다.

일 주일 동안 삶의 고달픔에서 지쳐 있는 영혼에겐 청량감이 넘

치는 찬양의 메아리가 우리들의 상한 심령과 삭막한 가슴에 더할 수 없는 오아시스인데, 이 기쁨과 환희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못 백성이 있다는 데 우리 가슴이 안타깝다.

찬양을 인도하는 김민식 집사는 ‘찬양 칼럼’에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찬양’이라고 강조했다.

온 충현의 가족들이 금요일 저녁 8시를 기다리며 참석하는 데 앞장서자.

①...지난 주일부

터 주일 낮 예배 후 찬양으로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제목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

행진곡풍의 이 찬양은 우리 교회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작사하고, 충현금요찬양을 인도하는 김민식 집사가 작곡한 것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한결 뜨겁게 해준다.

3절과 후렴으로 작성된 이 찬송의 1절을 소개하면, “새 아침이 밝아온다 주님 너를 부르신다 주의 성도 너는 어찌 잠자코만 있을손가 <후렴> 주님 너를 부르신다

오늘 대답하여라 나는 주님 위해 살리 주님 위해 죽으리라”

①...우리 교회 핸드벨 콰이어는 지난 5월 30일 기독교 한국햇불선교회관에서 배풀어진 나눔 시각 장애 선교회 주최 자선 음악회에 출연,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창단된 지 약 4년이 된 충현 핸드벨 콰이어는 이 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외 두 곡을 연주, 수준급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성자가 성부께로 받은 것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계5:1~14)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되어지고 봉하여진 책을 성자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1. 예수님이 받으신 책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5:1)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고 장차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

다.

여기서 사도 요한의 기도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2.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5:5)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있는 그 책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미래의 일을 알고 싶을 때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와 성자되시는 어린 양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계5:7)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환난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생물과 장로의 경배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5:8)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책을 취하신 것은 마치 왕자가 왕에게 왕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홀을 받는 것처럼 그 책을 받으신 것입니다.

책을 받으실 때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거문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현악기가 아니라, 말씀의 거문고입니다.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히 들어 있는데,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은 악취를

음에 새로운 감명을 주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열을 가져다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방에서 왕노릇 하리보다 하더라” (계5:10)

여기서 ‘나라’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하고 복을 빌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치아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5:11, 12)

하나님의 보좌가 천국의 가운데 있고 네 군데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이십사 장로들과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세상을 창조하고 율법을 기록한 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안과 밖에는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세계의 운명까지 빠짐없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책을 아무나 펼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곱 인(印)으로 봉하였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계5:3)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세계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인류의 운명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책을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비밀이 기록되어진 이 책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계획서를 이미 작성하셨지만 그것을 받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네” (계5:4)

이 말씀을 보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 책을 펴볼 자가 없음을 알고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회개 눈물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 눈물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가 장차 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5:6)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일곱 인을 찍은 것을 떼게 되면 그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린 양이 우리들의 중보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고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분은 항상 사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고 깨끗하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양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바 그 분을 “어린 양”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곱 뿔이라는 것은 완전한 힘, 전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일곱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본다는 것으로, 전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은 전능하고 전지하시며 일곱 가지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향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향과같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들의 심신을 정화시켜줍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에 의해서 금 대접에 담겨져서 향처럼 하나님께로 운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라” (계5:9)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서 새 노래를 합니다. 이 새 노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옛날에 작곡되어진 것이든, 최근에 작곡되어진 것이든 관계없이 성도들이 찬양을 하게 될 때 새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

다. 이 ‘절연 찬송’은 완전한 찬송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일곱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5:13)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자 만물이 이에 화답합니다. 이 찬양은 땅에 있는 만물로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으로 ‘자연 찬송’을 합니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5:14)

여기서 온 우주가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절연 찬송을 하니 이에 만물이 자연 찬송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이 아멘이라고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이다. 숨가쁘게 세월이 날아만간다. 담장이마다 빨간 장미가 넝쿨따라 피어 있는 모습이 6월을 한껏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6월은 빨간 장미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6월은 우리에게 뼈아픈 상흔을 남겨주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6월에는 6·25와 파란민, 폭력과 상이군인, UN군과 구호물자, 호국의 영령들, 현충일 등이 우리의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우리의 선배들은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일념으로 맨 주먹으로 일선에 나가 싸우다 숨져갔었다. 호국의 영령들, 순국하신 무명의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일까. 소금기가 2퍼센트만 있으면 물질이 부패하지 않는다는데, 전 국민의 25퍼센트에 가까운 천만 성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어찌하여 각종 범죄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가. 천만 성도가 제 구실을 올바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법이 물결이 흐르고 정의가 허수같이 흘러가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매스컴에 보도되는 소식은 갈수록 흉칙한, 지능적인 범죄들의 군상뿐이다. 인신 매매, 어린이 유괴, 성폭행, 청부살인, 마약 복용, 음란, 몰염치, 도덕성의 상실 등이 점진적으로 이 사회를 타락으로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성폭행, 인신 매매, 마약과 탈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안도의 숨을 쉬며,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충헌논단▶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

신표근 목사

(장년2부·제5교구·안수집사회 지도)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픔을 간직한 채 뜨겁게 중보의 기도를 해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나라 사랑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요,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우선 백화점에 홍수처럼 몰려오고 있는 외래 수입품, 농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만들어낸 농산품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 국산품을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향락, 사치, 과소비로부터 건전한 소비 생활로 환원되어야 하겠다. 이스라엘인들처럼 근면과 검소가 몸에 배도록 해야 하겠다. 오늘날 얼마나 귀중한 물자들을 마구 낭비하고 있는가? 쓰레기도 잘 분리해서 수거하면 그것이 곧 물자가 되지만, 무분별하게 버리면 폐기물이 될 뿐이다.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나바다 운동" 즉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꼭 실천하기로 하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면서도 신호등을 무시한 채, 길을 건너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교통질

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고쳐나가야 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조국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져야 하겠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민주국가를 이룩해서 균형 있는 경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간, 계층간, 노사간, 세대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나라와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내 사랑하는 동포를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국민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최대의 무기인 중보 기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급 공무원과 여야 정치인들, 정책 입안자들, 언론과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 인사들, 지성인들, 그리고 농어민, 탄광, 공장 등지에서 일하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군인과 학생들을 위

해 기도해야 하겠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절제하는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아껴써야 하겠다.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고 성결한 삶을 살며, 창조적이고 덕스러운 언어 생활로 건강한 환경을 가꾸어 가도록 해야 하겠다.

작은 일부터 철저히 하여 약속을 지키고, 정직한 마음으로 인간 관계를 형성해야 하겠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소금이요, 빛이므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청지기 의식을 가짐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물건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의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소수의 재벌들이 부의 대부분을 독차

지하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 부가 편재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다.

요즈음 들어 인간의 생명 경시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게 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찮은 동기로 살해하거나 자살하는 경향은 실로 끔찍한 죄악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상해를 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진무구한 태아들이 낙태 수술로 그 존엄한 생명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가? 이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자연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엄청난 황폐화와 오염된 모습으로 버려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켜야 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하겠다.

이 땅 도처에 만연한 죄악의 홍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무엇이냐 명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과감하게 고쳐 나갈 때 이 나라는 소망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 사항이라 생각한다.

복음 전파가 나라 사랑의 핵심적 실천 사항

장로칼럼

청장년 교육



마상락 장로
(장년3부 부장)

요즘 우리들은 다양한 가치관 속에서 혼란을 느끼며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특히 전례이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참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인공들이 이례서 되겠는가! 해결 방법이 있다. 즉 배우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배우야 하며 어떻게 배우야 할

것이지 알아보도록 하자.

배움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본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3:14)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만약 어떤 어린이이자 그 상태 그대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어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라지 않는다면 이상할 것이다. 교인을 하나하나가 배우는 데 열의를 가지고 배운다면 그런 교회가 바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예수를 믿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되고 그의 말씀을 배우므로 그를 아는 것에 계속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자.

이제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각각 연령층에 맞게 30대는 장년1부, 40대는 장년2부, 50대는 장년3부, 60대는 장년4부, 70세 이상은 소망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하여 교회 성장을 위하여, 또한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연령에 상관 없이, 교육 수준에 상관 없이, 빈부귀천에 상관 없이, 성별에 상관 없이 모두 배워야 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1:3)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갈6:8)

어려서부터 사회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저는 1991년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골짜기 어느 불신 가정에서 3남 5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한 번도 교회라곤 가보지 못한 가운데 어느날 저는 이렇게 서원 기도할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믿겠고 또한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저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또한 은혜의 선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12살때부터 기도해오던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출국을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이 글을 쓰기까지 인도하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만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정말 아무 곳에도 쓸모 없는 이 몸이었건만, 창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로 약속하시니 저는 그저 이 몸,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선교 현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1992년 2월에 하나님께서 한나호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주셨고, 결국 저는 한나호를 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아래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의 훈련 기간 중인 지난 5월에는 복음 선교선인 돌로스호가 인천항에 들어와서 돌로스호의 선교사 스텝진 50여명과 함께 우리 교회와 순복음교회 기도원 등을 돌아보며 백여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놀라게 성장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견학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결국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마음 중심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께 매달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적절한 도구가 되길...

- 자비량 선교 사역을 떠나며 -

허남조 형제(청년3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훈련 기간을 마치고 한 달 후인 7월 중에 첫번째 사역지인 남태평양에 있는 압(Yap)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평신도 단기 선교사의 기본 사역 기간인 2년을 마치는 1994년 6월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991년 국동방송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엠블런스 복음 선교선인 한나호

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눅15:4)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잃은 자를 찾으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적절한 도구가 되어 건축자의 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던 것처럼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후면 사역지로 떠나는 제가 여러 동역자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살아 계신 증거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한나호 팀사역에 잘 적응하고, 경건 훈련과 언어 훈련에 진보가 있게 하시며, 기도 및 재정 후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0교구 단합대회 가져



제10교구(교구장 이병학 장로, 지도 김용기 목사, 부지도 최지혜 전도사)는 지난 6월 2일 태능 푸른동산에서 교구 가족 단합대회를 가졌다.

283명의 교구 가족과 432명의 새신자가 참가하여 예배를 드리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

에바다부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키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 지도 김성운 목사, 부지도 이준우 전도사)는 교회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4일을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키기로 하였다. 회원들과 교사들은 그 동안 에바다부의 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농아학교를 찾아가 전도를 하는 등 열심히 배가운동을 실시하여왔다.

제간충현원고모집

- 원고 내용 : 시, 수필, 전도 체험기, 신앙 간증, 배가운동 및 교회 부흥과 성장에 필요한 제언
- 원고 매수 : 2백자 원고지 15매 내외
- 원고 마감 : 6월 21일

수도노회 주교연 주최 그리기, 글짓기 대회서 좋은 성과

지난 5월 16일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회장 송기홍 장로)가 주최한 제21회 그리기, 글짓기 대회에서 우리 교회 제1교육위원장 산하 교회학교의 어린이들도 참석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기 부문에서는 조요셉(유치부), 문정원(초등4부)이 최고상을, 안유리(초등4부)가 특상을, 네 명의 어린이가 가작을, 다섯명의 어린이가 입상을 차지했고, 글짓기 부문에서는 유연주(초등2부)가 최고상을, 김민정(초등2부)이 특상을 차지하였다.

초등1부 반별 찬송가 대회

초등1부(부장 김광남 장로, 지도 김필수 전도사)는 오는 6월 14일 반별 찬송가 대회를 개최한다.

세 개 반이 한 조가 되어 참가하게 되는 데 찬송가 대회는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3부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초등3부(부장 송기홍 장로, 지도 윤삼중 전도사)는 오늘 그림 그리기 및 글 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은 전도에 대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세레부 반별 성경찾기대회

세레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도 홍창민 목사, 부지도 현장남 전도사)는 5월 31일 반별 성경 찾기 대회를 가졌다.

대회를 지켜본 성도들은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성경을 찾는 참가자들을 보고 모두 경탄하며 성경 읽기를 독려한 그 동안의 지도가 좋은 결실로 나타났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금년 초 교사 15명과 학생 62명으로 시작된 이 세레부는 5월 31일 현재 교사 18명, 학생 140으로 부흥되었다.

세레부는 학습을 받고서 세레받을 준비를 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신앙 지도하는 교회학교 부서로서, 매주 낮 12시 30분교육관 212호에서 집회를 갖는다.

참여합시다

금융업종에 종사하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며 금융업계 복음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해당되는 성도들은 모두 참석하여 은혜 충만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 6월 7일 낮 12시 30분
- 장소 : 선교관 403호

직능전도부

금 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 봉사와 전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에게 특별한 지도력과 건강을 더하여주시고, 보좌하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 힘과 영력을 더하여주소서.
3. 교인 배가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태신자 갖기-6월 28일, 7월 5일 카드 작성, 교구 배가, 구역장교육, 충현금요찬양을 위하여).
4. 우리 세대에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북한 선교).
5. 충현봉사관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자, 물자, 재정을 허락하여주소서.
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민족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7. 교회 배가를 위해 헌신할 좋은 여전도사를 보내주소서.
8.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9.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하는 헌혈 운동(6월 14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기 충현세계선교연구원생 모집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선교연구원에서 선교에 헌신할 선교 저망생들을 모집한다.

- 인 원 : 100명
- 교육기간 : 1992. 6. 23 ~ 1993. 6. 13
- 강 사 : 노봉린 박사(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전호진 박사(한국재계선교협의회 총무)
전재욱 박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과장)
이동주 박사(서울신학대학 대학원 교수)
강승삼 박사(대한예수교 장로회 선교부 총무)
권형기 박사(아시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우삼희 교수(아시아연합신학대학 교수)
- 기타 해외 선교사
- 등록 희망자는 교구 담당 교역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접 수 : 사무국 행정과(교육관 102호)
- 면 접 : 6월 14일(주일) 오후 3시 30분 선교관 406호